

# 쌀 생산량 작년보다 더 줄어 378만톤

## 통계청, 2019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 감소세 '여전'... "태풍 등의 영향 커"

올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378만여톤으로 나왔다. 이로써 쌀 생산량은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5일 펴낸 '2019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에서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386만8000톤)보다 2.3% 감소한 377만9000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3만7673헥타르(ha, 1ha=1만㎡)에서 1.1% 줄어든 72만9820ha로 집계된다.

10아르(a, 100a=1ha)당 쌀 생산량도 약간 감소했다. 현백률 92.9% 기준 지난해 524kg보다 1.1% 줄어든 518kg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10a당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벼 낫알이 익는 시기 닥쳐온 태풍 '링링'과 이에 따른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가 컸다.

올해 쌀 생산량 감소에는 이같은 기후여건 악화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생산량의 전년비 감소율은 지난해 2.3%와 같은 수준을 보였는데, 재배면적 감소율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1.1%로 누그러진 반면 기후여건이 영향을 미치는 10a당 생산량 감소율은 지난해 0.4%에서 올해 1.1%로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태풍과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며 "다른 연도에 비해 면적이 덜 줄었지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더 크게 줄면서 쌀 생산량 감소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쌀 생산량은 최근 4년간 연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492만톤에서 2012년 401만톤으로 급격히 감소한 뒤 4년간 420만~430만톤을 맴돌다가 2016년 420만톤에서 2017년부터 300만톤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논벼 재배면적은 2002년부터 매년 감소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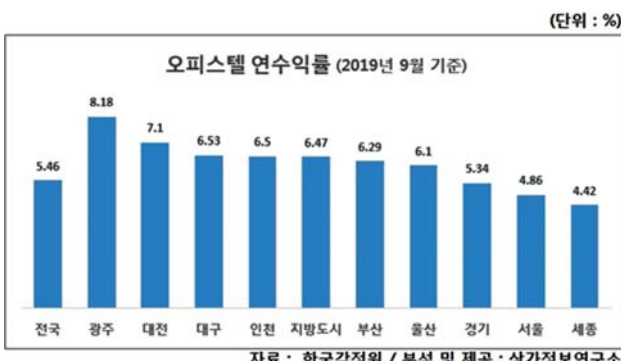
벼 재배면적 감소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쌀 생산량 400만톤 선 회복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살' 빈폴, 이름 빼고 다 바꾼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15일 인천 동구 일진전기 인천공장에서 빈폴 30주년 기념 리뉴얼 '다시 쓰다(Rewrit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빈폴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밀레니얼 및 Z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한국 패션 디자인의 독창성을 토대로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주 등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 광주광역시 8.18% '전국 1위'

서울·세종·경기 '전국 평균' 보다 낮아



국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은 5.46%를 기록했다.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8.18%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이 전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전

4.42%로 집계됐다. 서울은 세종보다 조금 높은 4.86%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광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637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월 평균 임대료는 33만1000원이다. 오피스텔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낮는데 월 평균 임대료는 세종시와 비슷한 셈이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2억2702만원)이다. 이어 경기(1억6819만원), 부산(1억3089만원), 대전(1억709만원) 순이다. 월 평균 임대료는 서울 76만9000원, 경기 64만6000원, 부산 4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월 임대료가 높은 오피스텔일 지라도 매매가격이 높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높은 매매가격의 오피스텔에 공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주은행, 목포 대양산단 입주기업 금융지원 강화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은행과 전남테크노파크의 대양산단 기업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광주은행은 대양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지원비율을 80%까지 확대 적용하고, 시설자금대출은 최고 1.2%, 운전자금대출은 최고 1.0%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도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조선기자재 사업지원기관으로서 대양산단 입주기업의 신성장동력사업 영위 기업의 발굴과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 "혼수도 유행한다"

필수가전 외 1위 혼수용품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신세대 신혼부부의 필수 혼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거 예비부부들에게 '소유'와 '구색맞추기'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효용가치를 따지는 실용적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맞벌이 직장인 커플·부부가 늘면서 목돈을 들여 구매하기보다 '사용'에 초점을 두면서 건강과 휴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품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바디프렌드에 따르면 매년 3~5월과 9~11월 결혼 성수기에는 예비부부들의 안마의자 렌탈 및 구매문의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구매로 초기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도 집안에서 간편하게 마사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풀이된다. 또한 젊은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점이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웨딩컨설팅 업체 듀오웨딩이



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로 중심으로 주말, 휴일을 제외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며 "실용성이 낮은 과시용 품목보다 힐링과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혼수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마의자에 수면, 소화를 비롯해 두피 피로를 풀어주는 '브레인 마사지' 등 건강 증진 기능이 추가된 첨단 기

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단

"혼수비용 부담 커"... '소유'→'렌탈' 실용성 트렌드

"모피·고급식탁 대신 안마의자로 힐링"

예비부부 4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혼수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5.4%)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답했다. 전체의 66.2%가 혼수품 구매를 '렌탈' 방식으로 하겠다는 응답과 궤를 같이 한다.

품목 조사에서 안마의자는 전통적 필수 혼수가전인 TV와 침대, 세탁기를 제외하면 1순위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지원비율을 80%까지 확대 적용하고, 시설자금대출은 최고 1.2%, 운전자금대출은 최고 1.0%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도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조선기자재 사업지원기관으로서 대양산단 입주기업의 신성장동력사업 영위 기업의 발굴과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순히 마사지를 받는 것을 넘어 서 건강 관리까지 젊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렌드 관계자는 "과거의 형식에 맞추는 방식과 달리 이제는 필요에 따라 품목 수는 줄이고 꼭 필요한 제품에 돈을 쓰면서 실적을 챙기는 방향으로 혼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특히 연중 결혼식이 많은 9~11월은 전국 직영전시장과 백화점 매장에 안마의자 구매 상담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엔 안마의자로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스마트하게 풀려는 직장인 예비부부들이 많아져 브레인 마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